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74/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

국어 영역

다음의 빨간색 사고 흐름을 확인바랍니다.

과연 2번 선지의 정답은 하나로 특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며칠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인상적인 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봉산 탈춤’의 양반탈과 달리 눈 아래부터 귀 위까지 이어진 **선이** 눈꼬리와 겹쳐 미소를 만드는데,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 쭈신다.”라는 말에 담긴 허풍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 탈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용이 새겨진 복잡한 모양의 관에 시선이 갔습니다. 양반탈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 관우 탈은 머리에 쓴 관까지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것처럼 얼굴이 강렬한 붉은 색이어서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모두 이용해 관우의 박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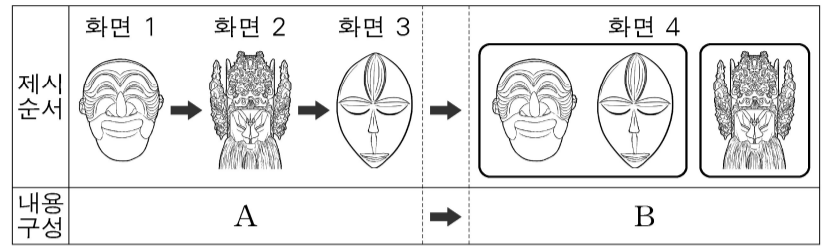
마지막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탈은 과장과 생략이 특징입니다. (화면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이 탈도 추상적으로 보일 만큼 **극감한 생략**이 인상적인데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되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여 기회가 되면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이란 주제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	B
①	사용된 색채를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형태상 차이점이 부각 되도록 구분하여 제시하기
②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③	인상적이었던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공통점이 드러나도록 순서를 변경하여 제시하기
④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관이 가진 장식성이 대비되도록 제시하기
⑤	표현된 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선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이 드러나도록 제시하기

판단이 명확히 가능한가요?

아무리 봐도

①번 선지 A를 제외하고는 다 맞아보이는데?

다른 선지가 틀린 이유를, 사후적 정답 끼워맞추기 말고,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100% 확실한 논리로 풀 수 있다면, 그 근거를 아래에 정확히 손으로 작성하여 밝혀봅시다.

잘 안 될겁니다.

하자니... 아마 자승자박의 논리에 계속 묶여,
같은 논리로 5개 선지를 모두 뚫어낼 수가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 시간, 혼란, 피로도, 집중력, 모든 것에서
손해봅니다.

이유는...

❶ 언어학 아닙니다. 국어교육학 Base 시험입니다.

❷ 논리학 아닙니다. 국어교육학 Base 시험입니다.

앞선 주차에서 말했듯이,

❷ 지문의 근거 찾아 + 선지 판단하는 = 논리적 사고

측정하는 시험 아닙니다.

정보처리 능력,

즉, '국어 능력'이라고 평가원에서 규정하는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❶ 의사소통 능력
 - ❷ 지식구성 능력
 - ❸ 문제해결 능력
- 을 측정합니다.

쉽게 말해

- ❶ 글쓴사람, 출제자 의도 파악 되느냐
- ❷ 그렇다면 글의 내용+구조로 정보처리 했느냐
- ❸ 그렇다면 문제상황에 적용해 문제해결 가능하느냐

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 ❶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❷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❹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❺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각 선지 옳고 그름 판정하는 유형은

이러한 5지 선다 유형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만, 5지 선다 판정 과정에 틀린/옳은 근거 찾아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유용한 도구일 뿐,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아니므로, 지문 근거로 선지 판별하는 연습이 극적인 성적 변화 가져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원 오피셜을 활용하고 실제 문제에서의 적용 양상을 봅니다.

구분	학습 방법
작문의 본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작문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의 글쓰기를 성찰하기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성찰하여 작문에서 지켜야 할 윤리 인식하기
	작문의 본질과 실제에 부합하는 정보 전달, 설득,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원리 이해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작문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수집과 선정 방법, 매체 활용의 원리 이해하기
정보 전달의 작문	의사소통 상황과 정보 전달 작문의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정보를 선별하기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구조를 이해하여 글의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정보 전달 작문의 원리를 이해하여 글의 내용, 구조,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 예상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과 표현의 윤리성을 성찰하기
작문의 실제	논증과 설득의 원리를 이해하여 논증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의 원리를 이해하여 글쓰기 과정에서 논제 분석 능력, 타당성 있는 논거 제시 능력, 합리적 해결 능력 신장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의 원리를 이해하여 글쓰기 과정에서 다양한 설득적 표현 전략 활용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의 원리를 이해하여 논거의 타당성, 내용 조직의 효과성,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작문	생활 속의 체험과 깨달음을 다양한 형식의 글로 표현하기
	개인 및 공동체에 대한 관조와 성찰의 내용을 다양한 형식의 글로 표현하기
	다양한 작문 상황과 목적에 맞는 자기소개서 쓰기
	다양한 작문 상황과 맥락에 맞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표현 전략 활용하기

구분	학습 방법
화법의 본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하고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의 말하기를 성찰하기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성찰하여 화법에서 지켜야 할 윤리 인식하기
	화법의 본질과 실제에 부합하는 정보 전달, 설득,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원리 이해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화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수집과 선정 방법, 매체 활용의 원리 이해하기
정보 전달의 화법 (발표, 강연 등)	정보 전달의 원리를 이해하여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의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정보 전달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시각 자료와 매체 자료를 선정, 활용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정보 전달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언어적·비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 활용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정보 전달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능동적 태도로 듣기
설득의 화법 (연설, 협상, 토의, 토론 등)	논증과 설득의 원리를 이해하여 논증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의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이상적·감성적 설득 전략 활용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합리적 해결 능력, 논제 분석 능력, 비판적 듣기 능력과 반박 능력 신장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논증·설득 화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설득적 의사소통에 참여하기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의 화법 (대화, 면접 등)	의사소통에서 진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장애 요인을 점검·해소하여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 성찰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자기표현·사회적 상호 작용의 원리를 이해하여 담화의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면접의 원리를 이해하여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는 능력 신장하기
	의사소통 상황과 자기표현·사회적 상호 작용의 원리를 이해하여 자신의 의사소통 내용과 방식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출처 : 평가원 오피셜 '수능대비 학습방법 안내 화작문'

<p>1p 정보전달의 화법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p> <p>1. 지문 설계 - 독서 내용+구조</p> <p>2. 1st 문항설계 = 주제+전개방식(내용<구조)</p> <p>3. 2nd~3rd문항설계에 따라 막히면? ⇒ 구조에 집중</p> <p>단순한 일치, 정보 확인, 정답 근거판단 논리적 사고 능력은 기본 중 기본. 이제,는</p> <p>정보가치 + 구조 처리 역량까지 필요!</p> <p>4. 괄호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다수 중요</p> <p>5. 신유형이라 판단되면? ⇒ 구조에 무조건 집중</p> <p>cf) 청중의 반응 정보처리규격: Q(의문), 경험, 배경지식, 긍정/부정 가치판단, 의문, 추측, 추론 ... 처리</p> <p>cf) 자료 활용 지문의 주제-구조 연결임. 절대 새로운 내용 없으며, 지문의 주제-구조에 따른 정보처리를 얼마나 평가원의도에 맞게 처리했느냐의 싸움</p> <p>6. 지문 정보처리 규격 ex) 인사말, 출처, 서적 인용, 전문가 견해, 수치 통계 자료, 등</p>	<p>2~3p 상호작용의 화작 통합형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p> <p>1. 대화(상호작용유형) ⇨ 전체 관통 주제 + 흐름 + 화제 전환 + 여전히 구조, 전개방식 집중처리</p> <p>2. 대화 특성상 정보량 터짐 + 화제 전환. 따라서, 문제부터 보고 지문-문항 전반 설계 파악 후 접근으로 시간, 발체 독 횟수 대폭 감소 필요</p> <p>3. 특이유형 cf)고쳐 쓰기 (관련개념 : 글의 구성원리 = 통일성-포괄성/일관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바탕. 문법요소 = 피동사동, 중의성, 부정, 중복 표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답선지- 맞춤법확률5%미만(그것도 언어영역시절) - 정답선지- 글의 구성 원리 80% - 정답선지-macro 문법파트(그 중 문법요소파트)15% - 따라서, 고쳐쓰기 유형은 매크로한 문법 + 글의 구성원리에 초점 두고 지문 뚫기 <p>cf) 표현하기 (원래 문학 문항 따라서, 내용+형식/표현. <보기> 조건 확인 후 발체/기준 잡아 처리)</p> <p>cf) 자료활용유형 (원래 작문유형이나 통합형 출제시 대부분 '주제' '구조' '정보가치 높은 선지' = 정답</p>
<p>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 배인호t 실전tip.</p> <p>1. 괄호에 집중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설계상 '괄호 = 화법의 특징적 정보구조' - 따라서, 현재까지 출제된 평가원 기출은 '(괄호)=정답선지 관련 확률 100%' <p>2. 막히면 내용일치가 아니라 구조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처리는 이미 독서에서 충분히 - 따라서, 내용+구조라는 정보의 요소 중 - 구조 처리 능력을 화작에 출제-설계하기 시작하면서, - 화작 난이도, 시간, 정보량 모든 부분에서 폭발 - 대부분의 기존 접근 틀 / 학생들은 적응 못함 <p>3. 더 이상 논리'만' 묻는 시험이 아니다.</p> <p>4. 정보처리 능력 = 정보가치 판단 + 정보구조 처리 = 압도적 정보량 처리능력</p> <p>수강 결과는? 10주 이상 수강생 10문항 평균 풀이시간 17분 -> 8분 10주 이상 수강생 98% 7분30초 이내 + 정답률100%</p> <p>수업 홍보가 아니라... 이젠 제발 좀 2017학년도 이후 바뀐 수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고생 덜 하길... 수험생들 고생 나도 눈물남 ㅠ</p>	<p>3~4p 설득의 작문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p> <p>독서 지문의 10% 이내만 차지하는 '논설문' 유형 특성 작문 유형으로 출제 따.라.서... 묻는 것은 철저하게</p> <p>1. 논증구조</p> <p>필수 : 주장+근거</p> <p>덧붙이면 : 전제/도입/배경+ 주장+근거 +예시 과거, 서울대 논술에서는 없으면 감점 연세대 논술에서는 있으면 가점 전제+주장+근거+예시+ 예상가능반론+재반박</p> <p>2. 비판 유형</p> <p>우리는 비판을 할 줄 모름. 따라서, 너무 간단</p> <p>정답유형1. 상대가 '언급'(범주)</p> <p>정답유형2. 상대의 주장(반대서술)</p> <p>논술기준, 전제 비판, 주장 비판, 근거 비판, 예시 비판, 전제와 주장관계 비판, 주장과 근거 관계 비판, 타당성, 적절성, 가치우열등에 대한 비판이라는 평가원의 틀이 있으나 학생 체감 zero. 그래서,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특히 주장) 인지, 상대방이 언급한 주장의 반대 서술인지만 판단해도 95% 정답.</p>

- ① 평가원 오피셜 바탕
- ② 기출분석과
- ③ 현장적용을 통한 충분한 검증을 끝내
- ④ 성적 향상의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 ⑤ 정립한 공식입니다. 암기 적용 필수

적용결과, 정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도입 도입 : Q-A 동기 : C 책. 출처 ⇨ E 발표 경험 : C 수업 ⇨ E 도움		
2 QA+a *갈호 주목! 예술지문구조	예술 내용 허풍 여유	예술 형식 단순
3	박력 위엄	화려
4	X	단순
5 Q Q Q 비교 대조 Q 청유	X	단순 vs 화려

예술 = 내용+형식
 주제 + 구조
 특히 구조에 집중!

수업 때 말씀 드렸듯이

정보란 = 내용 +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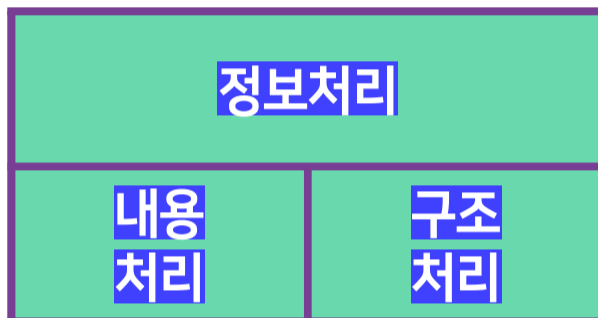
내용이 어려운 독서 ⇨ 내용 중심의 문항
 그렇다면 구조처리는? ⇨ 구조 중심의 화작 문항
 으로 설계하여 출제하는 것이 요즘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내용 처리만 연습을 하고,
 나름대로만 처리하지
 평가원에서 생각하는 구조처리와 내용처리를 모르고
 결국 8분 cut 해야하는 화작 10문항을 15분 20분씩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독서 1~2지문 날립니다)

평가원의 mind set

출제자의 머릿속을 따라가는 것은
 출제의도 파악을 통해 정답을 찾아내야하는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평가원은 다음과 같은 정보처리 mind set을 가지고 있습니다.1)



1) 문과와 이과가 다르듯, 물리학 전공과 국어교육이 다르듯.

	문과 생각	이과 생각
土	흙 토	플마
염소	음메~	CI
정의	Justice	Definition
5!	오!	오팩
Function	기능	함수
Differentiation	차별	미분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물

출처 : <https://m.blog.naver.com/joyntmay/221046668891>
 2) 보충 1~3주차 수업주제임과 동시에 원론서 정독으로 확인.

정보처리가

내용과

구조의 처리라는 것은 이미 출제매뉴얼 기반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술 역시

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평가원 특성상

예술 - 내용 : 주제, 느낌, 생각, 감정 등

*예술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

예술 - 형식 : 기법, 표현법, 수단, 구조 등

*예술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

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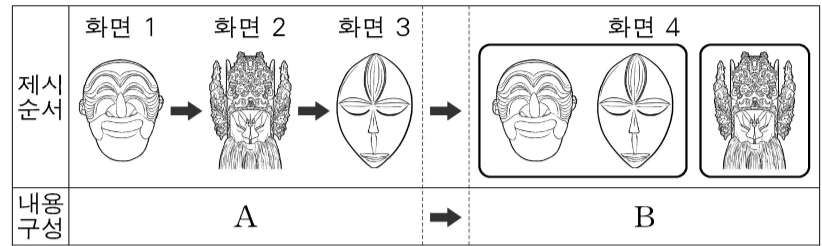
	예술 내용	예술 형식
양반탈	허풍.여유	단순한 표현
관우탈	박력.위엄	화려한 표현
카메룬탈	無	단순한 표현

이렇게 평가원에서는 정보처리 '할' 것을 예측하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2번 문항 정답이 2번 선지로 세팅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는 납득 될 수 없습니다만, 평가원의 mind set으로는 당연한 답입니다.

2. 다음은 위 발표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	B
①	사용된 색채를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형태상 차이점이 부각 되도록 구분하여 제시하기
②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③	인상적이었던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공통점이 드러나도록 순서를 변경하여 제시하기
④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관이 가진 장식성이 대비되도록 제시하기
⑤	표현된 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선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이 드러나도록 제시하기

② A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형태적 특징 = 예술 - 형식

② B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형태적 특징 = 예술 - 형식 : 단순 vs 화려

정답 끝.

출제되는 양상, 출제의도, 출제자의 mind set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괄호 = 100% 정답에 대해 확인합니다.

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 배인호t **실전tip.**

괄호에 집중하라

문항설계상 '괄호 = 화법의 특징적 정보구조'

따라서, 현재까지 출제된 평가원 기출은 '(괄호)=정답선지 관련 확률 100%'

막히면 내용일치가 아니라 구조 처리

내용 처리는 이미 독서에서 충분히

따라서, 내용+구조라는 정보의 요소 중

구조 처리 능력을 화작에 출제-설계하기 시작하면서,

화작 난이도, 시간, 정보량 모든 부분에서 폭발

대부분의 기존 접근 틀 / 학생들은 적응 못함

더 이상 논리'만'묻는 시험이 아니다.

정보처리 능력 = 정보가치 판단 + 정보구조 처리 = 압도적

정보량 처리능력



독서로 충분히 정보처리 능력을 물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화작문이 필요할까요?

라는 내부적 고민의 결과

내용 자체가 어려운 독서에서는 내용 중심 중학생도 이해하고도 남는 수준의 쉬운 내용이니, 화작에서는 구조 처리 위주의 출제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 화작에서 시간이 많이 쓰입니다. (*잘못된 접근을 하므로)



이것이 화법 1번 문항의 정답이 괄호 = 100% 인 이유입니다.

상술하면,

- ① 구조 처리 능력을 묻는 것이 지금의 화법
- ② 문어-독서와 달리 구어-화법 특성상, 화법만이 갖는 '표지(응집성-구조)'가 필요
- ③ 그것이 (괄호)로 출제. 당연히 중요
- ④ 중요하니 당연히 출제
- ⑤ 결국 정답 100%

1단락

여러분, '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2단락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네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3단락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 탈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후략)

1. 위 발표에 대한 설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4번 딱... 이게 화법에서 괄호가 있고 답을 고르는 유형에서는 현재까지 100%입니다.

(편의상 이렇게만 잡았습니다. 당연히 이것만 알려주면 또 꼼수네 스킬이네... 하실 수 있으니 -다만 이것도 수강생이 아닌 중간에 일부만 보고 그렇게 판단... 슬퍼요 π-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 지는 이제 차근 차근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며칠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인상적인 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사로 시작

- Q - A 로 도입
- C 책 - 인상 - 소개 : 발표 주제로 E 목적 밝히고
- C 국어 수업 경험 - E 도움
- *구조 잡습니다.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봉산 탈춤’의 양반탈과 달리 눈 아래부터 귀 위까지 이어진 선이 눈꼬리와 겹쳐 미소를 만드는데,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 쭈신다.”라는 말에 담긴 허풍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팔호 주목

시각자료

Q - A + a - A

문고 - 대답 없자 + 추가 정보 - 대답

주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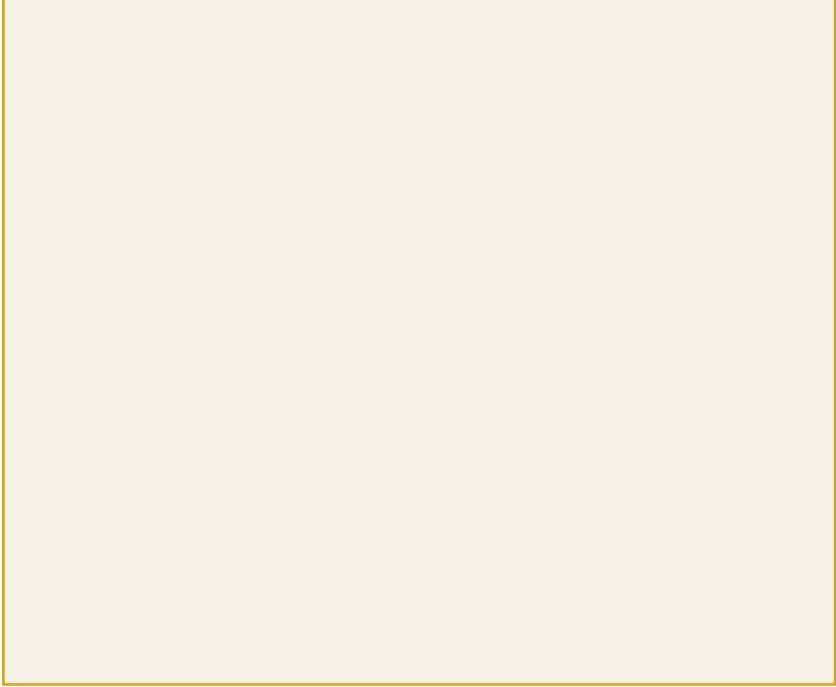
주제가 양반탈 인지는 알겠는데...

자. 당장 위의 지문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생각나는대로 아래에 써보세요.

지문 보지 말고!



안 써집니다.

써 봐야 10%?

수업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단기기억-장기기억 매커니즘에 따라
 절대로 완벽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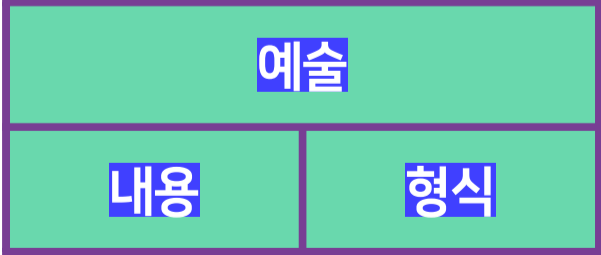
초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모를 뿐
 자신의 배경지식-에 지식구성을 해낸 것입니다.³⁾
 제발 무식한 소리 듣고, 믿고 다니시지 말고,
 교육심리-학습이론-구성주의 이론
 검색해서 한 번만 정독해보세요.

즉, 지식구성을 하지 못한 새로 본 정보는 20초 뒤에 휘발됩니다.

- ① 기억에 의존해 풀 수 없고,
- ② 결국 정보처리가 안되었으니
- ③ 출제의도가 아니며, 당연히 수 많은 risk...
- ④ 발췌독 와리가리 하다가 실수, 시간지연, 피로도, 멘탈... 다 잡아먹습니다.

이젠. 그만.

나는 화법 작문을 풀 줄 모른다
평가원 mind set을 배워
항상 그것을 고민하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적용하고
배워서 교정한다.
라는 자세로 갑니다.
그렇다면 위의 정보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3) 구성주의 이론 참조

A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봉산 탈춤'의 양반탈과 달리 눈 아래부터 귀 위까지 이어진 선이 눈꼬리와 겹쳐 미소를 만드는데,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 쭉신다."라는 말에 담긴 허풍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괄호 주목

시각자료

Q - A + a - A

문고 - 대답 없자 + 추가 정보 - 대답

주제

양반탈

구조 : 예술 형식 + 예술 내용

예술 형식 : 단순한 ~~~

예술 내용 : 허풍과 여유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 탈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용이 새겨진 복잡한 모양의 관에 시선이 갔습니다. 양반탈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 관우 탈은 머리에 쓴 관까지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강렬한 붉은 색이어서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모두 이용해 관우의 박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찬가지

괄호 주목

시각자료 Q - A

주제

관우탈

구조 : 예술 형식 + 예술 내용

예술 형식 : 복잡한 ~~~

예술 내용 : 박력과 위엄

마지막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탈은 과장과 생략이 특징입니다. (화면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이 탈도 추상적으로 보일 만큼 과감한 생략이 인상적인데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되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괄호 주목

시각자료

주제

카메룬탈

구조 : 예술 형식 + 예술 내용

예술 형식 : 단순한 ~~~

예술 내용 : 없음!

아마 그러면 주제는 예술-형식 중심인가?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여 기회가 되면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이란 주제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괄호 주목

시각자료

주제

탈의 비교 대조

구조 : 예술 형식 + 예술 내용

예술 형식 : 단순 vs 복잡

예술 내용 : 없음!

구조

제안

결국 주제는!

탈의 예술-형식-형태적 특징 중심으로!

특히 글의구성원리에 따라 주제 집약되는 마지막 단락에서 단순vs복잡으로 분류/구분/유형화

아마 그러면 주제는 예술-형식 중심인가?

2번 문항

② A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② B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역시 주제+구조 정답!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①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개념설명? 아까 구조에 없었죠?

일단 물음표. 전체 선지 판별 후 정답 없으면 그때 줍.발! (생긴 거 가지고 족발 그러지 말고!)
줍히고! 발췌독!

- ② 수업 시간의 경험이 /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

1단락 내용 O / 1단락 내용 O
내용 일치로 풀면 혼란 온다 했습니다!

1단락 구조

Q - A 로 도입

C 책 - 인상 - 소개 : 발표 주제로 E 목적 밝히고

C 국어 수업 경험 - E 도움

즉, 발표 주제 선정 동기는

C 책 - 인상 - 소개 : 발표 주제로 E 동기

수업시간 경험은

C 국어 수업 경험 - E 발표에 도움

*구조 잡습니다. 그래야 혼란 없습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인용 X 책 - 출처 ☺

1단락 구조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구조 잡으라 말씀드렸죠?

괄호가 100% 정답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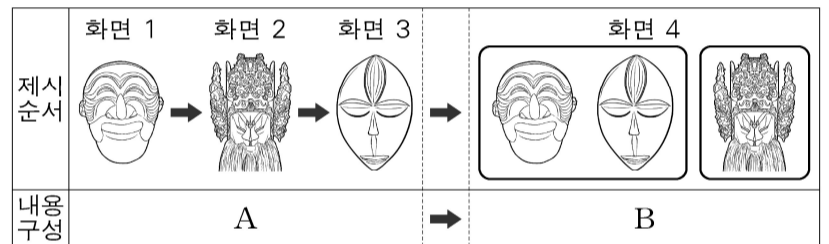
아래의 2번 아까 계속 정답 설명 드렸구요!

예술 내용 + 형식 에서

출제자 mind set 예술-형식-형태 이게 주제

구조 형태 = 단순 vs 복잡

2. 다음은 위 발표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	B
①	사용된 색채를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형태상 차이점이 부각 되도록 구분하여 제시하기
②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③	인상적이었던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공통점이 드러나도록 순서를 변경하여 제시하기
④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관이 가진 장식성이 대비되도록 제시하기
⑤	표현된 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선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이 드러나도록 제시하기

신유형 접근 공식

- ① 결국 주제 + 구조 잡아라
- ② 기존 유형과 유사점 관련지어라
- ③ 출제의도 파악하라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
- 나도 관우 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에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었어.
-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 ①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다.
- ②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
- ③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듣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 하며 듣고 있다.
- ⑤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다.

○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

배경지식 ⇨ 교정/추가정보 수용

Q 질문 ✕ 의도/구조 : 예측/기대

○ 나도 관우 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에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었어.

경험. 공감

○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수용

- ①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다.
- ②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

수업에서 말씀드렸듯이!

Q 질문 의문 아니라 예측이었고

결국 2번 정답 끝.

구조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시간 안에 풀립니다.

- ③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듣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 하며 듣고 있다.
- ⑤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1 도입 도입 : Q-A 동기 : C 책. 출처 ⇨ E 발표 경험 : C 수업 ⇨ E 도움		
2 QA+a *괄호 주목! 예술지문구조	예술 내용	예술 형식
	허풍여유	단순
3	박력 위엄	화려
4	X	단순
5 Q Q Q 비교 대조 Q 청유	X	단순 VS 화려

1번 문항 ⇨ 괄호(구조) 정답

2번 문항

	내용 접근시 (판단 불가)	주제+구조 접근시 (편안)
①	X	X
②	○	○ (의도 명확!)
③	○	X
④	○	X
⑤	○	X

3번 문항 ⇨ 구조로 깔끔!

모두들 기억합니다.

#1. '화법 작문'에서의 정보처리 능력 독서는 내용 화법 작문은 구조

다음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눈에 정리!
진짜 어렵게 한땀 한땀 장인이 손수 만들었으니 제발
고민하며 정독!

2020학년도 6월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며칠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인상적인 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시 부득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봉산 탈춤’의 양반탈과 달리 눈 아래부터 귀 위까지 이어진 선이 눈꼬리와 겹쳐 미소를 띠고 있는데,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 쭈신다.”라는 말에 담긴 허풍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 탈인데요, 무늬가 가장 먼저 보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용이 새겨진 복잡한 모양의 관에 시선이 갔습니다. 양반탈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 관우 탈은 머리에 쓴 관까지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강렬한 붉은 색이어서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모두 이용해 관우의 박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화면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이 탈도 추상적으로 보일 만큼 과감한 생략이 인상적인데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되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여 기회가 되면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이란 주제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동기

예술 형식

예술 형식

예술 형식

예술 내용

주제: 예술 형식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구조. C책 ⇨ E동기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X 책 출처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역시. 괄호 정답!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화면 1	화면 2	화면 3	화면 4
제시 순서	A		B
내용 구성	A		B

구조! + 주제!

	A	B
①	사용된 색채를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형태상 차이점이 부각 되도록 구분하여 제시하기
②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③	인상적이었던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공통점이 드러나도록 순서를 변경하여 제시하기
④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관이 가진 장식성이 대비되도록 제시하기
⑤	표현된 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선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이 드러나도록 제시하기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경지식 — <보기> 수정

-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
- 나도 관우 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어.
-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 ①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다.
- ②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 의문X 정답!
- ③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듣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하며 듣고 있다.
- ⑤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다.

구조!